

보수신당 창당...여권도 지각변동 조짐

기성정당 불신...박세일 주도 '대안정당' 추진 움직임

'반박근혜·非민주당' 성향 세력 결집 가능성

보수진영에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표면화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구도에 지각변동 조짐이 일고 있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힘입어 신당 추진 움직임은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통합이 국민적 지지로 이어질 경우 보수 진영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보수 신당은 '반(反)박근혜, 비(非)민주당'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을 믿지 않는 세력과 민주당 내에서 야합통합의 기류에 반발하는 세력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이 보수신당 추진 세력의 최종 목표로 보여진다.

정가 라운지

곽정숙, 광주 보건복지 사업예산 대폭 증액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곽 의원이 요구한 복지 신규사업에 202억원, 보건복지부 계속사업에 1조1858억 원이 증액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광주지역 보건복지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오는 2012년 7월 개원 예정인 '호남권 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재원 30억 원이 반영됐으며, 2012년 완공예정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미반영 정부지원금 45억 원 등이 추가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던 광주지역 보건복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반부패정책학회에서 주관한 '2011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이미경, 대형유통업체 심야영업 규제 추진

민주당 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



신당 창당설의 중심에 서있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3일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 사람과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 이사장은 "여당이 자기세상을 한다고 하고, 야권도 통합을 한다면 좀 더 지켜보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론분열이 심한 가운데 외부에서는 우리 시대가 풀어아 할 과제가 밀어닥치고 있다"며 "그동안 신(新)보수, 신진보 정당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이것으로는 안 되고 이를 묶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며

울이는 시점에 '박세일 신당'이 등장하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력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가피하게 보수 진영의 분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보수신당의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 내의 쇄신 성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의 정책과 인물이 새로운 정당으로서 탄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고, 한 친박계 인사는 "제3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신당이 뒷을 물려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박근혜 대세론'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향후 대선정국에도 파란이 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재균, 자동차 거리 조성 공로 감사패 받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지난 11일 광주 북구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준공식에서 '(사)자동차의 거리' 상인회(회장 최연모)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은 전문거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70대의 주차면과 상인 교육장, 주민편의시설 등이 마련됐다.



선관위, 'FTA 찬성 낙선송' 누리꾼 수사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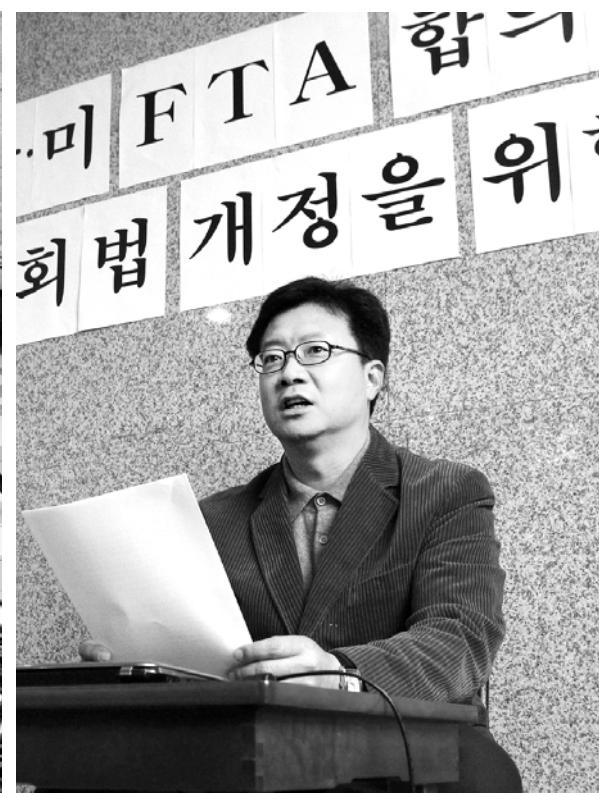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비방하며 일명 'FTA 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누리꾼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개사한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비록, 한나라당 외통 위원 18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포함됐고,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는 외통위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켜요'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얼키고 설친 한·미FTA...야당은 막고 여당은 농성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한나라당 정부에 접어든 가운데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 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여야 협의 처리와 국회폭력 저방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단식을 시작했다./연합뉴스

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대변인은 "손학규 대표가 이날 대통령을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나만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베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온다든지 새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당초 이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대해 "밀어붙이기"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 내일 국회 방문, FTA 처리 당부

민주 "새 제안 없인 만남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한다.

민주당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면담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대통

령의 국회 방문 결과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향배를 결정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라고 면담을 거부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15일로 연기해줄 것

의 모임인 진보행동 내에서도 이인영 최고위원은 통합전대,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 전대 후 통합전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내대표 시절 손 대표와 '찰떡 공조'를 과시한 박지원 의원은 손 대표와 상당히 멀어진 인상이다. 박 의원은 통합전대에 '울산'하는 손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통합전대 불발에 대비한 민주당 전대 준비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식 역시 녹록지 않다. 원내 전략의 총책인 김진표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재재협상, 내년 총선 심판론'에 반기를 든 채 새로운 절충안을 들고나와 한나라당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당내 역학구도

'통합·FTA' 마찰음

처리 방식 싸고 계파내서도 이견

야권 통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불거진 이후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했던 정파나 계파 내에서도 두 현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터져나오며 한 후 당내 권리지향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처럼 통합 전당대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박주선 최고 위원과 장세환 의원은 민주당 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86 인사들

중통합론을 주장했던 정세균 최고 위원도 일간 대통령을 위한 '원샷 통합 전대'라는 손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손 대표를 견제해온 비주류 모임인 민주희망2012는 통합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대 출마를 준비중인 이종걸 의원·문학진 의원은 통합전대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박주선 최고 위원과 장세환 의원은 민주당 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86 인사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정기2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동구 동명동 조대일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정기 498천만 최저가 398천만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정기 49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평산구 운동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정기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 99평 건평155평
김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아파트(도시기수,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5만원(조정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수유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발목펌프 운동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부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부페
- 야외결혼식부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약 문의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75,000원

55,000원

30,000원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총)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 : 5천만원/월 650만
-용지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완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 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증개사

062)961-3377

010-6670-9800